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고택에는 선조들의 정신과 삶의 지혜가 담겨있다

오래된 집, 가고 싶은 마을 – 한국의 고택

이진경 지음

"고택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선조의 삶의 터전이자 모든 것이며,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조차 사연을 품고 있다. 숱한 세월을 거치면서도 굳건하게 지켜낸 그만의 고유한 정신과 지혜가 담겨 있는 곳이다."(본문 중에서)

장흥의 천관산 아래 자리한 방촌마을에는 장흥위씨(長興魏氏) 집성촌이 있다. 멀리서도 천관산의 억새와 기암괴석이 도드라져 보인다. 방촌마을 안쪽에 자리한 존재(存齋)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161호)은 호남 실학을 대표하는 위백규(魏伯珪·1727~1798) 선생이 태어난 곳이다.

존재는 진사를 지낸 영이재 위문덕 아들로 1727년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명민했던 그는 6세에 국문을 해독하는 것은 물론 10세에 천문과 지리를 비롯한 병서, 의학 등을 공부했다. 25세 때 병계 윤봉구 선생을 만나 학문의 깊이가 더해진다. 그의 고택은 새로운 시대 실학의 학풍을 열었던 그의 정신과 당대의 문화가 집약된 곳이다.

옛 전통과 문화가 숨 쉬는 고택을 조명한 책이 나왔다. 오랜 세월 빗장이 걸렸던 고택은 이제 온고지신, 온고지정이라는 오래된 미래를 담보한다. '한국의 고택기행' 작가이자 문화유산신문 기자였던 이진경 씨가 펴낸 '오래된 집, 가고 싶은 마을-한국의 고택'은 고택이 들려주는 이야기다.

저자는 "우리 문화유산이나 한국의 고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방문자의 시각으로 고택을 바라보았다"고 말했다.

강릉 선교장 이강백 관장은 추천의 글에서 "고택은 우리 모두 함께 나누고 아껴야 할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라며 "고택이 품고 있는 아름다움과 전통문화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책에는 33곳의 고택과 마을이 소개돼 있다. 장흥 존재 고택과 나주의 남파고택, 해남의 해남윤씨 녹우당을 비롯해 구례 운조루 고택, 경주의 독락당, 안동의 의성김씨 학봉 종택 등이 나온다.

나주시에 자리한 남파(南坡)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은 종손인 박경중 선생의 6대조 박승희가 1884년 이곳에 초당을 지은 이후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고 있는 밀양박씨 나주 종가다.

"남파 고택은 1884년에 지은 초당을 시작으로 1910년에 선생의 4대조 남파 박재규(1857~1931) 선생이 지은 안채를 비롯해 1917년에 지은 아래채, 1930년에 지은 사랑채, 1957년에 지은 헛간채 등 총 7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저자에 따르면 100년 동안 한 번의 개조도 없었다고 한다. 건축 당시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안채는 전남에 있는 민가의 단일 건물로 규모가 제일 크다. 남파 선생이 장흥군수를 지낸 연유로 안채는 장흥 관아를 참조해 여느 전통한옥과 달리 격식과 위엄이 있다.

안동의 의성김씨 학봉(鶴峰) 종택(시도기념물 제112호)은 조선 중기의 문신 학봉 김성일(1538~1593) 선생의 종가다.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이 극에 달한 16세기, 학봉은 퇴계 선생 제자로 스승의 학풍을 이어갔다. 이곳에는 학봉의 장손인 단곡 김시추가 학문을 연구했던 풍뢰헌이 있다. 바로 옆에는 구 운장각이 있으며 안채 뒤에 사당이 있다.

나주시 남파고택은 100년 동안 한 번의 개조도 없이 건축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로 전남에서 민가 중 단일 건물로 가장 규모가 큰 안채. 〈이가서 제공〉

각각의 고택은 전통문화의 멋을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다. 신화와 역사, 문화의 보고이기도 하다.

조용헌 건국대 석좌교수는 "한국의 고택은 하나도 같은 구조가 없다. 외관은 비슷하지만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방 배치구조가 다르고, 사랑채, 안채, 행랑채 모양도 다르다. 목수가 달랐기 때문이다. 건축 구조가 다른 점을 감상하는 것도 포인트다. 거기에다 풍수가 다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가서·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옛 애인의 선물 바자회 — 김미월 지음

삼사십대 사회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김미월 작가의 작품집 '옛 애인의 선물 바자회'가 발간됐다. 지난 200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정원에 길을 묻다'로 등단한 작가가 8년 만에 펴낸 창작집이다.

책에는 제4회 젊은작가상 수상작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등 모두 10편의 소설이 수록돼 있다. 독특한 낙천성이 인상깊었던 첫 소설집 '서울 동굴 가이드', 고립에서 벗어나는 진실된 성장을 그린 첫 장편 '여덟 번째 방', 고유한 매력을 포착해내는 작가의 시선이 돋보인 두 번째 소설집 '아무도 펼쳐보지 않는 책' 이후 펴낸 책이라 기대된다.

소설은 삼십대로 접어든 이후에도 팍팍한 생활과 낙담에 짓눌린 청춘들의 고단한 일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첫 단편 '가장 아름다운 마을까지 세 시간'은 방향성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서른아홉 살 여성 '양희'의 이야기이다. 자유롭게 떠도는 삶을 살아온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이 찾아온다.

표제작 '옛 애인의 선물 바자회'는 아내와 평탄하게 살아가던 남자가 옛 사랑과 재회하면서 겪는 얘기다. 남자는 옛 애인 희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단 한 번 털어놓았는데, 이마저도 남의 이야기를 하듯 삼인칭으로 들려준다. 덕분에 희수는 남자의 과거를 미화해 기억한다.

김금희 소설가는 "김미월이 그간 그려내온 우리의 고단한 생활과 무거운 청춘, 하지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분명 반짝이고 있는 일상의 빛과 특별한 윤리적 감수성은 세계를 향한 "질문들"의 중요한 답신이었다"며 "다행히 한 편 한 편을 읽어내려갈수록 그렇지는 않다고 그가 내 기운 마음을 상냥하게 바로잡아주는 것을 느꼈다"고 평했다. 〈문학동네·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잘못 든 길도 길이다 — 김여옥 지음

"성격이 팔자라고 했던가. 평생 파고(波高)에 힘들었지만 삶에 정성을 다한 지금의 내 모양이 나쁘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지극한 쓸쓸함의 늪 이 또한 욕심인가. 오랫동안 묶지 못한 시들을 손보면서 마음앓이가 깊었다. 우울했던 내 시여, 아팠던 지난날들이여 이젠 날아가렴. 가서는 돌아오지 마렴."

해남 출신 김여옥 시인이 시집 '잘못 든 길도 길이다'를 펴냈다. 모두 60여 편의 시는 아픔의 기억과 정서를 환기한다. 이재복 평론가의 말처럼 "응어리진 마음을 어르고 달래서 그것을 신명나게 풀어내려는 그늘의 세계"다.

화자의 내면에 드리워진 응어리는 대체로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나 사건이 원인인 경우다. 특히 어린 시절 겪어야 했던 오빠의 죽음은 오랫동안 의식을 지배한다. "갑자기 서늘한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을 엄습"한 기억이 시간과 무관하게 출몰한다.

"슬픔도 진하게 달이면/ 아린 향 풍기는/ 꽃이 되지// 약초가 약이 되는 건/ 독이 있기 때문인 듯// 밤새 개 짖는 소리에/ 분분한 매화 이파리/ 깊은 잠 못 들것다// 저눔의 징상시런 안개 땜시/ 꽃바람 든 에미는/ 또 길 잃것다// 천지에/ 마음 둘 곳 없것다"('슬픔도 진하게 달이면' 전문)

위의 시 '슬픔도 진하게 달이면'은 '슬픔'과 '독'도 '꽃'과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면의 고통을 삭여 은은한 향으로 발효해내는 미학을 정갈하면서도 잔잔하게 풀어낸다.

추천사를 쓴 김정란 시인(상지대 명예교수)은 "우리는 모두 최종적으로, 슬픔에 던져진 자들이라는 것. 그러나 그 슬픔에 대한 껴안음은 얼마나 건강하며 힘찬가"라고 평한다.

〈책만드는 집·1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뉴스를 보는 눈 — 구본권 지음

"언론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기는 해도, 세상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은 아닙니다. 거울 보는 법을 익혀야 거울에 비친 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언제 어디서나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만들었고, 우리를 쉴 틈 없이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 살게 만들었다. 문제는 의도를 갖고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가짜 뉴스'마저 범람하고 있으며, 어떤 것이 진실된 정보인지 알아채기 힘든 현실이다.

30여년 동안 현직 신문기자로 일하며 언론학 박사로서 강의를 해 온 구본권 기자가 오늘날 언론과 가짜뉴스를 분석한 책 '뉴스를 보는 눈'을 펴냈다. 언론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비뚤어진 언론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무엇인지 짚으며, 나아가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식별하는 법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사람이 새로운 정보에 끌리는 이유를 진화 과정에서 생긴 생존 본능과 연결짓는다. 그만큼 뉴스에 민감한 이들에게 최근 소셜미디어의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가 객관적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으며, 가짜뉴스의 왜곡 기술 또한 나날이 정교해져 이를 분석하는 눈이 필수가 됐다고 역설한다.

책은 8장에 걸쳐 진행된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언론의 권한과 책임을 파헤치고 언론의 권력화 현상을 비판하며, 비뚤어진 언론의 실태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진다. 6장에서는 뉴스의 기준과 전반적인 분석을 다루며, 7장에서는 가짜 뉴스가 만연한 현실과 기술·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원인을 설명한다. 8장은 인간이 가짜 정보에 현혹되는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풀빛·1만7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다름 아닌 사랑과 자유 — 김하나 등 지음

"작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 마음만으로도 사람을 치유한다."(최은영)

'반려동물 천만시대'이라는 말에 걸맞게 동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에 발맞춰 최근 동물 학대·유기 등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동물권,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김하나, 이슬아, 김금희, 최은영, 백수린, 백세희, 이석원, 임진아, 김동영 등 9명의 작가가 펴낸 책 '다름 아닌 사랑과 자유'는 비영리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의 '일대일 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동물 복지 활동을 진행하며 만난 동물들과의 추억과 시선을 담은 책이다.

'일대일 결연'은 나이가 많거나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 있는 등 당장 입양이 어려운 동물들을 1:1로 후원하는 방식이다. 저자들은 불법 개농장에서 구조된 엄마에게서 태어난 개, 사설보호소에서 방치돼 야생화된 개, 교통사고를 당했던 고양이 등을 후원하며 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 서로 교감했던 일화,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된 사연 등을 풀어냈다.

작가들은 이들 일화를 통해 어떤 존재를 대가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거나 무참히 죽어가는 동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한다. 또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내 동물과 함께하고, 유기와 학대로부터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책은 결연 대상 동물들이 지내게 될 카라 더봄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해 기획됐으며,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동물권행동 카라에 기부돼 유기 동물 구호 및 동물 권익 수호에 사용된다.

〈문학동네·1만3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